



경북도, 코로나19 농업인 피해 최소화 총력 대응

농어촌진흥기금 1,001억 원 특별 상환연장
경영안정자금 100억 원 긴급 추가 지원
판로확대 위해 '사이소' 온라인 마케팅 추진
주 2회 '코로나19 박살 일제 방역의 날' 운영

경북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산물 판로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지역내 확산으로 경북을 찾은 방문객이 크게 줄면서, 청도, 영천을 비롯한 미나리 재배농가와 딸기농가 등 현장 직거래를 주로 하는 제철 농산물의 판매가 급감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모임, 외식자제, 행사 취소 등으로 농식품의 소비감소는 물론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 오프라인을 통한 농산물 판매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농가 경영안정과 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해 선제적으로 나서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농가 경영안정에 적극 나선다. FTA 등 시장개방화에 대응하고 농어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북도에서 조성하고 저리 융자로 지원하고 있는 농어촌 진흥기금을 1년간 특별 상환 연장한다. 금년도 상환예정인 220억 원을 포함 총 1,001억 원이 연장 대상으로, 도내 1,772명의 농가가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운영자금이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을 긴급 추가 지원하며, 축산농가의 피해경감을 위해 사료구매 자금도 확대 지원하고 신청기간도 3월말까지 연장해 접수를 받는다. 온라인을 통한 농산물 판촉활동을 확대한다. 코로나19로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계속 이어짐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마케팅 홍보에 집중해 나간다. 경북도는 사이버쇼핑몰인 '사이소'를 통해 대대적인 판촉활동을 전개하고, 사과, 홍삼, 도라지 등 면역력강화 식품에 대해서는 오는 4월 말까지 30~50%까지 할인된 가격적인 조건으로 판매를 진행, 소셜커머스 등 모바일을 통한 판촉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고령농, 영세농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현장수집, 운송, 판매까지 유통사

비스를 지원해 판로 어려움을 해소하고, 친환경 농산물 및 농촌융복합산업(6차)인증업체에는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한편, 금년부터 시행하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사업도 초기에 지원하여 농산물 판매를 확대해 나간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활동에도 적극 나선다. 도내 가축방역 기관에서 보유중인 방역차량 및 방제기 171대와 유관기관에서 보유중인 방제기 등 총 420대의 방역 장비를 동원해 기차역, 버스 터미널, 전통시장, 체육시설 등 다중집합장소에 대한 방역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3월부터는 매주 2회씩 '코로나19 박살 경상북도 일제 방역의 날'을 정해 다중 이용시설 등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시 군 새마을회, 축협 공동방제단 및 군부대 제독차량 등이 참여하는 민

관군 합동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 감염 의심지역 거주·방문자는 초청에서 제외하고, 입국시에도 14일 이상 개별 모니터링을 실시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농촌인력지원센터 등을 통해 유휴인력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확보 해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장기 대책도 함께 추진해 나간다. 소비감소로 인한 농산물 가격하락 방지를 위해 저품위 과실(사과, 참외) 시장 조기격리로 가격을 안정화시켜 나간다. 농식품 해외 박람회 취소와 바 이어 상담회 지연, 한국산 제품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농산물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으나, 하반기에는 공격적인 해외시장 개척과 판촉활동 전개로 수출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방문객 감소 뿐 아니라 예약된 체험숙박 일정마저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농촌관광시설은 여행상품 개발과 WIFI 스마트설비 설치, 안전시설장비 지원 등으로 코로나19 종식 이후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코로나19 여파로 도내 농촌을 찾아오는 방문객이 감소하고 농산물 판매 및 영농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농가피해가 최소화 되고 농산물 판매가 확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농가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진 기자 syj-0305@hanmail.net

권영진 대구시장

“가짜뉴스·유언비어
수사 의뢰해 강력대응”

권영진 대구시장이 3일 코로나19 확산 대응과 관련해 “특히 앞으로도 가짜뉴스와 유언비어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시장은 이날 대구시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제발 부탁드린다. 이러한 몰염치한 행위를 삼가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이런 와중에도 SNS를 통해 방역대책에 밤낮 없이 수고하는 의료진과 공무원, 대구 시민을 상대로 입에 담지 못할 헐담과 가짜뉴스,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의료진과 봉사자,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대구시민들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드는 몰염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황보문록 기자 hmo4910@naver.com

고난 속에서도 장미는 핀다 ‘경북의 저력’

코로나19 극복, 통 큰 기부 계속
(㈜금복주, 금복문화재단 10억원
대경농금농협 사과음료 40만캔

코로나19와 확산방지에 애쓰고 있는 경북도에 온정의 손길이 계속되고 있어 화제다.

(주)금복주, 금복문화재단은(대표이사 이원철) 3일 도청을 찾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한 성금 10억 원을 쾌척했다.

이원철 (주)금복주 대표이사는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긴급하게 지원하게 됐다”며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자원봉사를 위시한 여러 방면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주)금복주, 금복문화재단은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대표 향토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민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자 10억원의 큰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도내 확진자 지

원, 지역사회 감염확산 차단, 마스크·손세정제, 방호복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대구경북농금농협(조합장 손규삼)은 3일 도청을 찾아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의료진들에게 써 달라며 5톤 트럭 12대 분량 40만 캔의 사과음료를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를 통해 기증했다. 사가로 2억 5천만 원 상당 물량이다. 기증된 사과음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들과 선별진료 기관인 시군 보건소 종사자들에게 전달된다.

또한 일부는 대구·경북 상생의 뜻을 담아 대구 관내 지정병원에도 전달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구경북농금농협은 사과의 생산지도, 매입, 가공, 유통 등 사과산업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대표 단체다.

손규삼 조합장은 “경기부진으로 어려운 가운데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사과 소비량이 감소하는 등 사과 산업이 활기를 잃을까 걱정이

다”며 “어려울 때 일수록 작은 힘이라도 모아야 한다는 마음에서 사과음료를 기증하게 됐다.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경북도 수의사회(회장 박병용)도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를 통해 성금 1천만 원을 전달했다. 박병용 회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도민들의 걱정이 크다. 희망을 잃지 말고 이번 위기도 잘 극복하길 바란다”며 응원의 메시지도 전했다. 수의사회는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반려동물사육환경 조성을 위해 400만원 상당의 손소독제와 예방수칙 홍보배너 350개를 도내 동물병원 318개소로 배부할 예정이다.

지역 건설인인의 기부도 계속됐다. 대한건설협회 경북도회(회장 배인호)는 지난달 28일 5천만 원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데 이어 3일 건설 관련기관과 힘을 모아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 5천만 원을 전했다.



(주)금복주 (금복문화재단) 이원철 대표이사(가운데)가 3일 경북도청을 찾아 성금 10억원을 이철우 지사(오른쪽)에게 전달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이밖에 안동 옥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장재용 씨는 지난 1일 “코로나19 막으려고 고생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와주세요”라며 경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찾아 손수 준비한 꼬막비빔밥 100인분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움을 준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어려울

때 일수록 하나 된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해온 저력이 우리 도민들의 DNA에 새겨져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또한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각자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 추가 확산을 막고 생업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용진 기자 syj-0305@hanmail.net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NO!

술잔을 비우셨다면, 운전석도 비워주세요.